

지역 매아리

고창군, 축사 화재예방 주의 당부

고창군이 최근 일교차가 큰 건조한 날씨와 농장의 노후 된 전기시설 사용으로 인한 축사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축사는 보온덮개, 조립식패널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축단위로 운영돼 전기시설 등 안전시설의 전문적인 점검이 미흡하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농장의 과다한 전기사용과 부주의, 비위생적인 농장 운영 등이 있으며, 보온을 위해 축사를 밀폐하는 행위는 축사 내 습도를 높여 누전이나 합선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축사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누전차단기 설치 및 월 1회 이상 점검 △전기용량의 퓨즈 및 규격 전선 사용 △전기용량 큰 전기기계 · 기구 동시 사용 금지 △과부하를 발생하는 전기기구는 반드시 한 개의 콘센트에 한 개의 기구만 사용 △축사 내 배선 및 환풍기, 분전함 내 먼지와 거미줄 제거 등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길이 빨리 번질 수 있다"며 "콘센트나 전선에 내려앉은 먼지와 거미줄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수시로 제거하고 소화기나 고압세척기 등을 축사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이러한 주의와 관심만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산내면민의 날 · 체육대회 성료

제30회 산내면민의 날과 체육대회가 21일 능고초등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는 산내면 체육회가 주최하고 산내면과 수자원공사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만 시장 관현대행과 국회 유성열 의원, 김광수 의원(전주갑),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원과 김재오 의원, 김민영 정읍신민회조합장을 비롯 지역 내 기관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면민의 날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공약장은 후학 양성과 구절초메마공원 조성에 총 20억을 지원한 김순호(91세) 씨, 효열장은 피부임으로 부병 중인 노모를 15년 넘게 극진히 봉양하고 있는 형영식(47세)씨가 받았다. 산업장은 지역특산품인 노랑고구마 시범사업 추진과 판로 개척에 공을 세운 양병덕(60세)씨가 수상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정읍시, 미세먼지 줄이기 총력

전기자동차 보급 · 축정소 확충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연일 계속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읍지역 미세먼지 발생 현황은 총음(0~30 μ g/m³) 27%, 보퐁(31~80 μ g/m³) 63%, 나뭇잎(81 μ g/m³) 10%의 일수(日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1인 당 최대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모두 10대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시는 지난해에도 민간 25대와 읍면동 복지 허브와 23대 등 모두 48대(13억원)의 구입을 지원한 바 있고,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조기폐차를 위해 올해 4억8,2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모두 368대를 지원했다.

시는 또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로 전환할 방침으로 먼저, 올해 7대를 전환한다.

이와 함께 대기질 알리미도 추가로 설치한다. 신태인읍에 대기오염 측정망 1개소를 추가 설치해(기존 1개소) 북부권역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즉각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해 도로 비산먼지 전용 제거 차량 2대를 구입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이들 사업 외에도 최근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수칙 등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 수칙과 변경된 예보등급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 학교와 읍면동을 통해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 차원의 중장기적인 사업뿐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생활과학교실 '창의융합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 생활과학교실이 창의융합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시 생활과학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정읍시가 주관하며 북권기금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후원으로 전북과학대학교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과학대는 올해 32개 교육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501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일반 시민 대상의 '창의과학교실(재료비 부담)'과 저소득층 대상의 '나눔과학교실(무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생활과학교실에서는 실험 위주의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드론교실, 증강 현실을 활용한 박람회 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교육한다.

코딩교육은 블록형 코딩과 피지컬 컴퓨팅의 만남으로 코딩을 좀 더 쉽게 접근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설계하고 작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드론교실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배우게 된다.

생활과학교실 관계자는 "올해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대상의 나눔과학교실 확대와 도서 산간벽지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능력을 높이고 계층별 ·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생활과학교실에는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063.630-9129)에 문의 또는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동행으로 행복한 삶 · 더 아름다운 사회'

고창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화합의 장 마련

고창군에서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20일 고창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행사는 '동행으로 행복한 삶, 더 아름다운 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박우정 군수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 꿈드래장애인의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최관주)가 주관하고 고창군,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 고창군 장애인후원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고창 농어업협회 미술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

권현장 낭독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기념식 등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더불어 축하공연과 장기자랑, 고창군 장애인거주시설 아름다운마을 품물과와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행운권 추첨 행사가 이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장애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과 정책이 무엇인지 늘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정책을 펼쳐 가겠다"며 "이 일환으로 모

든 음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 장애인들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앞장서고 있고,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꿈을 실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 꿈드래장애인의회 고창군지부 최관주 지부장은 "이번 행사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옥정호 상수원 관련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는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월 7일부터 7일간의 활동한 옥정호 상수원관련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도형)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철보발전취수구를 주취수구로 지정한 경우 파악, 정읍시민 식수원 원수 상태 확인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옥정호 식수원 관심 제고, 정읍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특위 구성으로 전북도와 입실권 압박효과, 옥정호 개발관련 정읍시의 대응능력 파악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고, 기초의회 특위 구성으로 조사권 및 자료 확보 어려움 등을 활동 한계로 꼽았다.

안전심사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정읍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은 원안가결,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은 원안가결, 정읍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수정가결,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보류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읍시 근로자 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은 원안가결 했다.

정읍시의회는 20일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내달 9일까지 심도 있고 공정한 결산 감사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은 전주대 국제한식조리학교 민계홍교수를 주축으로 24일부터 금년 말까지 관내 900여 개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부안의 참 맛을 찾기 위한 컨설팅에 들어갔다.

부안의 맛과 멋 대표 음식 발굴 발벗고 나서

관내 900여 음식점 현장 컨설팅

부안군 농업기술센터가 부안의 맛과 멋 대표 음식 발굴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전주대학교 국제한식조리학교 민계홍교수를 주축으로 오는 24일부터 금년 말까지 관내 900여 개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부안의 참 맛을 찾기 위한 컨설팅에 들어갔다.

특히 군 농업기술센터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프대회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안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부안의 맛과 멋을 알리려고 시작 되는 이번 컨설팅은 음식점 메뉴와 음식의 세련미, 조화 등 외형적 요인과 청결, 신선도 등에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실시한다.

또 위생적 요인 종사원의 친절도, 식단의 분위기 등 서비스 요인 등 부

안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기 위한 운영자와 종사원의 인식 교육도 함께 추진되며 희망하는 음식점부터 매주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 업소의 일정에 맞추어 현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컨설팅은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도 다 맛이 있다'고 알려진 부안음식의 품격과 이미지를 높이고 업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보안점은 극복하여 부안 외식산업의 활성화와 부안의 대표 음식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선 친 환경기술과장은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부안대표음식으로 자리 잡은 뽕 비빔밥의 성공을 발판으로 '부안 음식의 맛' 컨설팅은 부안군 외식산업의 한 획을 긋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산해진기가 풍성한 맛의 본고장 부안을 제대로 알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nd gift sets, along with text describing the product and promotional offers. The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and details about various gift sets and their prices.